

몸짓으로 얻는 '열반의 희열'



◇ 숲, 물, 바람, 흙, 태양... 자연속에서 자연을 관찰하며, 자연과 호흡하며,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을 온몸으로 드러내 보이는 홍신자씨.



◇ '순례'는 삶의 호흡이 깨달음을 위한 끊임없는 여정이며, 그 깨달음은 처음부터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산문박의 禪

전위무용가 홍신자씨

춤, 자유, 명상, 구도, 홍신자!
어디에서건 아무때고 춤추기를 잘하는 여자.

그녀가 무대에 섰다. 구도의 춤, 춤은 그녀에게 종교이기도 같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구속받지 않는다. 자유롭게 춤과 만난다. 그리고 춤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이룰 수 없는 저 높은 의식의 차원에서 관객과 서로 만난다.

그러하기에 예술의 전당 개관 10돌 기념으로 5월 27, 28일 양일간 선보였던 최신판 '순례'와 '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번에 공연된 '순례'와 '새'는 지난해 세계연극제 기간동안 열린 한국 현대무용가 초청공연에서 초연되었고,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호림이 해-한국축제' 공연에서 '열반의 희열'이라며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순례'는 영적인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종교적 여행을 뜻한다. 고통과 마음의 고요는 누구에게나 '갈망'의 대상이다. 그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길고도 험난하다. 50cm의 목발을 신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무용수의 경직되고 느린 움직임은 강인한 힘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인간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순례의 끝은 삶 그 자체처럼 급격이 바뀐다.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찾아 떠난 여행이 처음부터 자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지금까지의 재 경험을 토대로 표현했습니다."

'새'는 춤꾼 홍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연적인 사물의 관찰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우주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자연의 존재에는 그 속에 내재된 나름대로의 호흡이 있고, 저는 이러한 자연의 호흡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의 호흡에는 무수한 변화가 있고, 인간은 변화의 과정에서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죠. 삶의 호흡은 곧 깨달음을 위한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각각의 작품인 순례와 새를 한 작품으로 구성한 복합다중극이다. 자아와의 탐구라는 그녀의 삶의 형식을 춤이라는 틀을 빌어 표현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나의 춤은 완전한 자기없음이 되어야 합니다. 관객을 의식해서도 안되고, 자아를 의식해서도 안되고, 오직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몸에 실려서 저 영적인 율동으로 남게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아(無我)의 상태입니다. 무아의 상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의 상태죠. 춤은 그 자유로 가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춤추는 자와 보는 자 사이에 발아는 흐르는 그 감동은 바로 자기를 완전히 놓아버린 자유의 희열을 교감하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춤은 순간 사라지는 춤. 춤은 보이지만 춤추는 자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자의 영혼에만 와 닿을뿐. 그 흔적은 남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한다.

"춤은 무엇을 증명하거나 제시하기 위해서 추는 것이 아니에요. 춤은 등 의 아름다운 선을 자랑하고 팔다리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해질수록 춤은 보이지 않고, 춤추는 자의 몸만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춤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으니 나를 봐주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춤은 보는 이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것은 춤이 아닙니다."

춤에 대한 그녀의 의식은 단호하고, 순결하다.

73년 첫 창작무용 '제례'를 통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국의 전위



"춤은 완전한 자기없음이 되어야 합니다
관객도 자아도 의식없는 에너지의 흐름
나를 보이려는 춤은 춤이 아닙니다"
30년동안 몸짓으로 끝없는 마음공부
'춤=자유=명상=구도'는 그녀의 화두



◇ 춤꾼 홍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새'에서 그녀는 빠릿한 작은 새 한마리로 무대에 섰다. (사진=고영배 기자)

무용가 홍신자는 한국여인들의 응결된 한을 작품화 한 독무 '나선형의 대각선'을 통해 죽음의 연습을 통해 깨달음에 이룬다는 회오리 바람과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다. 그리고 웃는돌 무용단과 함께 한 '실'은 육성의 하나인 지구를 우주라는 바다에서 침몰할 수 있는 섬으로 해석해 내 문명비판적인 눈높이 작품이라는 극찬을 또한번 받았다. 희노애락,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이 그녀 춤의 화두다.

그녀의 작품은 궁극적으로 자유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몸짓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첫 작품 '제례' 이후 그녀는 자유를 위해 어렵게 시작했던 춤을 버리고 또다른 자유를 찾아 인도로 떠났다.

홍신자의 인생에서 인도는 새로운 정점이다. 76년-79년 인도에서 머문 3년은 무용가로서의 그녀의 삶을 더욱 길게 만들었다.

그때 그녀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라즈니쉬는 홍신자의 춤을 보고 말했다. "너는 무용을 그만두라는 안된다. 나는 네 팔과 다리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얼마나 춤속에서 스스로 사라져 버릴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다. 너는 타고난 무용가다. 결코, 무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계속해라. 너에게 춤이 곧 구도의 길이 될 것이다. 춤의 신비, 춤의 순수, 춤의 자유, 그것이 너의 길이다. 너는 그 길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야한다."

그녀는 라즈니쉬로부터 마 푸렘 바티아(Ma Prem Varty)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제(戒)도 받았다. 푸렘은 사랑을, 바티아는 회오리바람을 뜻한다. 사랑의 회오리 바람.

라즈니쉬를 만났던 이후 그는 춤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다. 라즈니쉬는 춤을 떠나려던, 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마냥 추기만 하던 그녀에게 춤을 새로이 일깨워 주었다.

라즈니쉬 곁에서 보낸 2년 가까운 세월은 바로 자신을 부수고 죽이는, 또 언제 그것이 되살아나더라도 죽일 수 있는 연습을 해두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오랜동안 언제나 그녀에게 있어 구도의 중심은 춤이었다.

꿈꾸는 듯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또, 급박하게 움직이는 그녀만의 독특한 춤, 앞뒤달라진 그 춤의 세계를 사람들은 명상춤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 춤을 체험하는 관객들이 그 일부인 명상적인 요소들을 보고 명상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춤은 자연입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을 모토로 한 자연적인 움직임이죠. 내 춤은 자연속에서 시작해 마음의 필터를 거쳐 나와 몸통 도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자연이란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상태. 너무나 자연과 떨어져 있는 요즘같은 하이테크시대에 물질적 공간으로서의 자연과 정신적 마음 상태로서의 자연 모두가 중요하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 두가지가 총족된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죽산리에 보급리지를 틀었다.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시골 야산 중턱에 야외공연장과 함께 그녀가 정성 들여 지어놓은 흙집과 통나무집, 그리고 콩고텐트가 용기종기 어울려있는 한적하고 아담한 '웃는돌 명상센터'. 이곳에서 전위무용가이자 자유인이며 자연인인 홍신자는 비정기적으로 명상캠프, 물단식, 포도단식, 마사지캠프, 태극권 등의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르헨티나로 걸 명상캠프, 주말노동 명상캠프도 열었다.

깊은 사색과 명상에서 이끌어낸 결단력과 그에 뒷받침된 실천으로 항상 앞선길을 춤으로 보여주는 홍신자.

30년전 27살의 나이로 낯선 미국땅에서 육체를 빚는 고통을 이겨내며 자신의 자유를 펼치기 위해 무용을 시작했던 그녀는 육신의 나이를 잊은지 오래다. 그녀는 춤에 대한 구도에 대한 정열을 분출하는 젊음을 간직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에게 '아직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도 '영원히' 구도의 춤꾼으로 무대위에 서 있을 것이다. 춤을 출 것이다.

"모든 것이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듯 저 또한 많은 무대에 섰었지만, 마지막 무대는 결국 자연이 아닐까요?"



◇ 구도의 춤꾼 홍신자는 깊은 사색과 명상속에서 새로운 길을 춤으로 보여준다.

이은자 기자

죽산국제예술제

자연과 환경친화 예술의 만남
4일~7일까지 안성 '웃는돌 명상센터'

오는 4일~7일까지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웃는돌 캠프에서는 홍신자씨의 춤과 명상, 그리고 동아시아 예술인들이 어우러진 한바탕 비람이 일어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위예술인들이 함께 펼치는 죽산국제예술제가 바로 그것.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죽산국제예술제는 홍씨가 93년 영구 귀국한 후 95년부터 매년 열려왔다. 죽산국제예술제는 신비한 자연과 예술의 어우러짐을 보여주는 독특하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동아시아의 현대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흥취와 웃는돌 단원들의 원력으로 이뤄내고 있는 죽산국제예술제는 예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영원한

주제를 향한 끊임없는 순례다. '자연과 환경친화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죽산국제예술제는 무용, 음악, 설치와 행위예술, 영상, 워크숍, 이벤트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다.

'동아시아의 바람'을 주제로 공연되는 음악은 일동창씨의 피아노, 홍신자씨의 소리, 일본 오치 형제의 타악연주 등으로 꾸며진다. '자연에서의 재발명'을 주제로 진행되는 설치작업은 목각장 인간문화재 박찬수씨의 목각조형을 비롯해 일본 오키게 이스케의 컴퓨터 설치작업 '뇌파' 등이 선보인다. 이와함께 태극권, 기우용, 명상워크숍과 진흙목욕, 요리축제 등 관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0344)676-8901



◇ 한·중·일 삼국의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죽산국제예술제는 음악·무용·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세계가 펼쳐진다.